

국어 어렵지 않게...수학은 킬러문항 유지

올 수능 시행 기본계획 발표 EBS 70% 연계 수준 유지 저소득층 응시수수료 면제

“지난해 수능의 국어 31번 문항과 같은 초고난도 문항의 출제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기선 원장이 26일 2020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 발표 과정에서 ‘국어영역 초고난도 문항 출제 지양’ 방침을 밝혔다.

국어영역과 관련해 평가원 권영락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은 “지난해 국어 31번은 길고 복잡한 지문에다가 또 문항에서 복잡한 사고 과정을 과도하게 요구했다”

며 거듭 “지문과 문항에서 그렇게 과도하고 복잡한 사고 과정을 조절하겠다”고 부연했다. 제시된 정보의 양(지문과 문항), 사고 과정 등을 손 봐 지난해처럼 난이도 조절 실패 논란을 사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따라 올 수능에서 국어영역은 유난히 어려웠던 지난해보다 까다롭게 출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평가원은 국어영역 난이도 조절을 위해 검토위원 입소를 앞당겨 정답률 예측훈련과 난이도 예측훈련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수학영역의 경우 그동안 수험생들에게 ‘킬러문항’으로 불렸던 초고난도 문항(통상 2문제) 출제 기조가 올해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수학 초고난도 문항이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으로는 풀기가 어렵다

는 지적과 관련해 평가원 관계자는 “난이도 변별을 위해서는 고난도 문항이 필요하다. 지난해 수능 수학 난이도 수준은 예년과 비슷했다”고 현행 기조 유지 방침을 밝혔다.

수학과 관련해 평가원의 이런 입장은 영어영역 절대평가(등급제), 국어영역 초고난도 문항 지양 방침 아래 수학영역마저 평이하게 출제될 경우 변별력 확보에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광재 송덕고 교사(진로진학 담당)는 “현재로서는 수능이 지난해처럼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성급한 예단은 금물이다. 난이도와 별개로 수능 시험 문제 유형이 어느 정도 정해져있는 만큼 학생들에게 ‘기출문제와 EBS 교재 및 문제집 위주로 꾸준히 학

습하라’는 조언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평가원은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의 연계 역시 전년과 같이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영역은 기본소양을 평가하면서 수험생 부담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핵심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된다.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는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도 제공되지 않는다.

정부는 올 수능에서도 저소득층 교육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환불 제도를 시행한다.

평가원은 수능에 앞서 올 6월과 9월 수능 모의평가를 시행한다.

/김영호 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27 달뜨기 00:27
해질 18:49 달지기 10:46

구름 낀 하늘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고 바람 강하게 부는 곳 있겠다.

광주	구름 많음	8/20	보성	구름 많음	4/17
목포	구름 많음	9/17	순천	구름 많음	6/19
여수	구름 많음	9/18	영광	구름 많음	7/18
나주	구름 많음	4/19	진도	구름 많음	8/18
완도	구름 많음	9/19	전주	구름 많음	9/20
구례	구름 많음	2/20	군산	구름 많음	9/16
강진	구름 많음	5/18	남원	구름 많음	2/20
해남	구름 많음	5/19	흑산도	구름 많음	8/17
장성	구름 많음	4/19			

◇ 바다 날씨

목적지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남~남서	1.0~1.5	남~남서	1.0~1.5
남부 앞바다	남~남서	1.0~2.0	남~남서	1.0~2.0
남해 앞바다	남~남서	0.5~1.0	남~남서	0.5~1.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남~남서	0.5~1.5	남~남서	0.5~1.5
남해 서부 앞바다(서)	남~남서	0.5~1.5	남~남서	0.5~1.5

◇ 생활지수

보통	뇌졸중	보통	나쁨
보통	감기	보통	나쁨
보통	미세먼지	보통	나쁨

◇ 물때

목적지	간조		만조	
	11:43	23:47	06:41	18:36
여수	07:12	19:03	01:07	13:00

◇ 주간 날씨

28(목)	29(금)	30(토)	31(일)	4/1(월)	2(화)	3(수)
☁	☁	☁	☀	☀	☀	☀
9/19	6/14	4/14	4/14	5/16	5/17	6/17



횡단보도 빠르게 건너기 캠페인 26일 광주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대원들이 광주시 서구 치평초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횡단보도 빠르게 건너기·정지선 지키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절차 노동자 참여 중간단계 추가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전남지노위)는 “다음달 1일부터 새로운 부당해고 구제신청 처리절차를 시범운영하고 제도 운영성과를 평가해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전남지노위에 따르면 그동안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민주노동·한국노동·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소속 전문가들이 서류를 통해 사건조사를 하는 주심회의와 회하·각하 단독심판, 심판위원회 회부 등 최종 심판을 하는 2단계로 구성됐다.

구제 신청자는 이 과정에서 세부적인 과정은 파악하지 못한 채 최종 심판 단계에만 참여해 결정 통보만 받아왔다.

전남지노위는 구제 신청자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화해회의 또는 정정검토회의로 구성된 중간 단계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구제 신청자는 최종 결정 단계 전에 구제 절차를 투명하게 살펴볼 수 있고 본인의 의견도 적극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지노위 관계자는 “이번 절차개선 추진은 노사간 화해율을 높이고 노동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기 위한 목적”이라며 “시범운영기간 긍정적인 효과를 얻으면 징비·전산징비 등을 확충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희 기자 kimyh@kwangju.co.kr

학교 교실 공기청정기·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의무화

정부 이르면 7월부터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실에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 측정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미세먼지 PM-10 200 μ g/m³ 이하)을 초과한 시설은 국민에게 공개된다.

26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 법안 5건의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은 다음달 2일 공포된다. 이날 의결된 학교보건

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실에 공기청정기 설치와 미세먼지 측정기가 설치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법에 따라 교실 공기질을 점검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의 참관이 허용된다.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던 공기질 위생점검은 반기별로 1회 이상 해야 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어린이·임산부·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에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에는 사·도지사가 오염도 검사 결과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기존 권고사항이었던 대중교통의 주기적인 실내 공기질 측정과 지하역사의 실내 공기질 측정기 설치도 의무화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공공기관의 저공해차 의무구매·임차제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비롯한 대기관리관련특별법·항만대기질 개선특별법 제정안이 의결됐다.

/김영희 기자 kimyh@kwangju.co.kr

5·18가짜뉴스 확산실태와 대응방안 교육

5·18민주화운동교육관은 “5·18가짜뉴스 확산실태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교육을 다음달 3일부터 17일까지 3주간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5·18교육관(서구 치평동) 2층 중강의실에서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강사는 박용수(5·18연구소 전임연구원) 전남대 정책대학원 객원교수가 나선다. 누구나 교육시간에 맞춰 교육관을 방문하면 참여(선착순 50명)할 수 있다. 문의전화는 062-613-5187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련됐다

교육은 제1강 ‘5·18가짜뉴스 유형과 역사적 배경’, 제2강 ‘5·18가짜뉴스 기원과 확산 동향’, 제3강 ‘5·18가짜뉴스, 어떻게 뿌리 뽑을 것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강사는 박용수(5·18연구소 전임연구원) 전남대 정책대학원 객원교수가 나선다. 누구나 교육시간에 맞춰 교육관을 방문하면 참여(선착순 50명)할 수 있다. 문의전화는 062-613-5187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조선대 교수 아들 박사학위 심사 논란

조선대학교 교수의 아들이 박사 학위 논문 심사에 참여하는 등 지도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돼 대학 측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26일 조선대에 따르면 이 대학 A 교수의 아들 B씨는 지난해 2월 아버지가 지도하는 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B씨는 석사 2과목, 박사 1과목 등 3과목에 대해 아버지의 강의를 들었으며 과목마다 좋은 학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 특히 A교수는 2017년 12월 아들의 박사 학위 논문 심사에도 위원으로 인준 과정에 참여했다. 교육부 국민신문고에 관련 내용이 접수돼 대학본부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A교수는 “당시에는 관련 지점이 없었다”면서 “아들 학점은 학업을 성실히 수행한 결과이며 다른 교수들에게 어떠한 특혜나 청탁도 부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한국형 연금 발전소 분양

(태양)

A 타입 식용달팽이 사육장(건물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B 타입 미래형 100KW 550만원(예상) **최단 2년6개월**
현금투자대비(년 40% 수익가능) **자금회수가능**

분양지역

- 경기도 안성시 잔여분 2기
- 영남 신북면 잔여분 5기
- 영광 흥농 잔여분 3기

2019년 8~10월 준공예정

모듈·LG·한화큐셀(단결정)
인버터·ABB(이태리)·카고(독일)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개발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87-8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에너지관리공단 **80% 용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농업 **2018. 5. 1. 대통령령**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전·답 가능)

● 한전과 20년 장기 계약 안정적 투자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부지 매입합니다(전·답가능)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지!

전국대표 ☎ 1588-1543 · 010-3645-1479